70년 수행, 여전히 행복에 이른다

정여 스님, 2월 15일 '행복에 이르는길' 특별법석



정여 스님은 2월 15일 국제신문 4층에서 특별법석 '행복에 이르는 길'을 진행했다. 즉문즉설을 하고 있는 정여 스님(가운데)

70세를 뜻하는 고희(古稀)는 두보의 시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에서 유래한 말로 '드물다'는 뜻이다. 이러한 드문 행적의 예로 정여 스님(前 범어사 주지)은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고령의 나이로 봉암사 동안거를 성만했을 뿐 아니라 2월 15일 국제신문 4층 강당에서 70년 동안 얻은 수행의 결과를 회향하는 특별법석을 펼친 것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제목으로 연 특별법석은 장안사 주지 정오 스님,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스님, 박대성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 왕선자 부산여성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법문에 앞서 정여 스님과 내빈들은 헌다와 헌화로 부처님께 공양했다. 그리고 마실상좌 의식을 열어 불법을 위해 헌신한 33명의 불제자에게 감사함을 전달했다. 마실상좌는 수행자의 마음으로 상가와 함께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불사를 위해 손발이 돼 준 불자들을 의미한다. 정여 스님은 33명의 마실상좌들에게 흰색 천의 카타를 목에 걸어주고 그들의 노력을 치사했다.

이어 정여 스님의 즉문즉설이 진행됐다. 패널은 정오 스님, 보혜 스님, 도명 스님, 도산 스님이 나섰으며 재가자들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봉암사 수행 환경과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정여 스님은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바뀌는 곳"이라며 "다시 태어남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설명하기 참으로 어려운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수행했던 도반들 중 단 한명에게서도 나태함을 본적 없다. 수행자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도반들의 뜨거운 수행력에 힘을 얻어 정진을 할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덧붙여 스님은 "수행 동안 부산불자들의 응원과 돌아와 포교할 생각을 하니 더 힘이 났다"고 말했다.

고희(古稀)기념 수행 회향 법문
마실상좌의식 통해 불제자 격려
즉문즉설로 봉암사 안거 소회
사부대중 500여명 참석 '성황'

이어 수행의 결과, 육체의 고통 등 다채로운 질문에 답을 했으며 행복에 대한 법문으로 마무리 했다.

정여 스님은 "봉암사 안거 중 삶을 회향해도 아쉽지 않을 정도였다"며 "행복에 이르는 길은 바로 수행으로 얻는 지혜와 만족함에 있다. 의식주는 풍족해졌어도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다. 행복한 가정도 능력을 인정해주는 직장, 재산, 친구 등 각자 원하는 바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고 설법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법은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계율 정신과 더불어 쉼 없는 정진으로 얻는 지혜의 결과"라며 〈열반경〉의 '제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적멸위락(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을 설명하고 생멸법에 따른 모든 집착을 놓고 고요한 열반에 들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그림 포교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문화포교사찰 동림사, 그림교실 수강생 모집

부산 기장 동림사(주지 성타)를 방문하면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시골길, 모란 꽃, 가을에 만나는 빨간 홍시 그림들이 반긴다. 문화포교 방편으로 40년 동안 그림을 그려온 주지 성타 스님의 작품들이다.

성타 스님은 '동림사 갤러리 그림교실 강좌'를 열고 회원을 수시 모집한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와 7시로 나눠 운영한다.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주지 성타 스님이 직접 지도하며 동림사 내 법연당 동림 갤러리에서 수업을 진행한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 회비는 10만원이다.

올해 2기를 맞는 그림 교실은 불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한다. 성타 스님은 "그림에 불교 색채를 많이 넣지 않는 것은 일반인 포교를 위함"이라며 "불자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림사를 자연스럽게 찾아줬음 좋겠다. 지난해에는 목사님도 와서 그림을 배우고 사찰 문화를 익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성타 스님은 그림 교실을 통해 밝은 세상을 발원하며 회원들과 그림 봉사도 나설 것을 밝혔다. 현재 스님은 기장경찰서와 협약을 맺고 '밝은 거리 만들기'에 동참하고 벽화 그리기 봉사를 진행 중이다.

성타 스님은 "앞으로 회원들과 우범 지대에 벽화도 그리고 단청이 필요한 사찰에도 방문할 것"이라며 "힐링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도심을 빠져 나가는데 백화점이나 문화교실이 아닌 동림사에서 좋은 도반을 만나고 쉼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타 스님은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2009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으며 특선 2회, 입선 3회 등 수상경력을 보유했으며 개인전 15회, 초대전 300여회 등 연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미술대전(국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광주광역시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운영위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051)508-2917 하성미 기자


문화포교사찰 기장 동림사 주지 성타 스님은 그림을 설명하며 불교 뿐 아니라 어린 시절 추억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림으로 힐링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불교거사림, 정법 원력 '1000회 법회'

부산불교거사림(회장 공병수)의 정기법석이 1000회를 맞았다. 오직 정법을 알리고 실천하고자 시작된 법회로 그 역사가 45년이다.

부산불교거사림은 이를 기념하며 2월 14일 부산불교신도회관 법계정사에서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前 중앙승가대학 총장 종범 스님, 前 포교원장 혜총 스님, 범어사 재무국장 범수 스님, 부전선원 선원장 안국 스님 및 공병수 회장, 류진수 前 부산불교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불교거사림은 불자들과 스님들의 원력으로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다며 지난 법석을 회고했다. 또한 자비희사로 보살행을 실천한 안성이 보현회장과 배태순 불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공병수 회장은 "한국불교사에 전무할 1000회 법회가 부산불교거사림회를 통해 드러남이 자랑스럽고, 한국불교 진일보의 디딤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우직하게 한길로 가고자 했던 회원들과 스님들의 동참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변치 않는 원력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법문은 종범 스님의 특별 법석으로 진행됐다. 종범 스님은 지난 1975년 부산불교거사림 지도법사로 시작해 현재까지 법문을 담당하고 거사림 회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날 종범 스님은 신수봉행(信受奉行)을 강조하며 정법(正法)과 바른 수행으로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화엄승가대학원 첫 졸업생 23명 배출

의성 고운사 화엄승가대학원의 첫 졸업생이 배출됐다.

고운사는 2월 8일 고엄사화엄문화템플관에서 고운사화엄승가대학원 졸업식 및 대강백 각성 스님의 전강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화엄승가대학원서 23명 졸업생 및 수료생이 배출됐다.

이날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스님은 "21세기는 과연 종교가 필요한지, 우리는 21세기 불교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가 문제"라며 "화엄과 대승, 소승, 화두선 등 역사속의 신앙을 아우르고 통합하며 이러한 문제를 풀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운사는 이날 25명 스님들에게 대강백 각성 스님의 법맥을 전수하는 전강식을 열었다. 또한 올해 팔순을 맞은 각성 스님의 산수연도 함께 진행됐다.



각성 스님은 "배우고 수행하지 않으면 범부가 부처로 가는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중생계와 허공계가 없어질 때까지 공부하고 수행정진 하는 것이 졸업의 의미"라며 "대각을 일으키기 전까지 마음 깊이 수행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동명세계선센터 선수행학교 7기 모집

캠퍼스에서 선의 진수를 경험할 기회가 열린다. 부산 동명세계선센터(선원장 수진)는 '선수행학교 제7기'를 모집한다. 개강은 3월 8일이며 4개월 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동명대 세계선센터(동명관 4층)에서 진행된다. 선 수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참가비는 10만원이다.

지도법사는 선원장 수진 스님이 직접 나선다. 수진 스님은 해인사 승가대학장, 전국승가대학협의회장, 대한불교조계종 교재편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 제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담당했다. 前 조계종부산연합회장으로 재가 안거를 이끌어 수행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 해인정사 주이다.

동명세계선센터는 "전국 400개 대학에 오직 하나뿐인 선 수행 학교다. 선수행학교를 통해 영원의 세계에 이르는 참된 공부의 자리를 체험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051)629-3583 하성미 기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교육안내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에너지다" -대행선사 법어

내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농아 원만하게 생활을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自性)을 밝혀나가는 생활 속 참선 수행프로그램입니다.

교육의 특징

■ 3가지 주제 : ①주인공(主人公)에 믿고 맡기기 ②지켜보기 ③실천궁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해서 토론과 행선을 진행.
■ 생활속 공부 점검 :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마음공부로 풀어가는 실천.
■ 한마음으로 같이 공부 :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내주는 공생관(共生觀) 등, 일상의 문제들을 공부로 삼아 도반으로 배우며 지혜와 자비의 길로 같이 성장.

27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모집

1 교육대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2 교육일정 : 2017. 3. 18(토) ~ 5. 20(토) 총10주
3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30~8:40 (오리엔테이션 오후 1시부터)
4 교육장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 (3층)
5 교육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
6 문 의 : TEL 031)470-3200, 매주 월요일은 휴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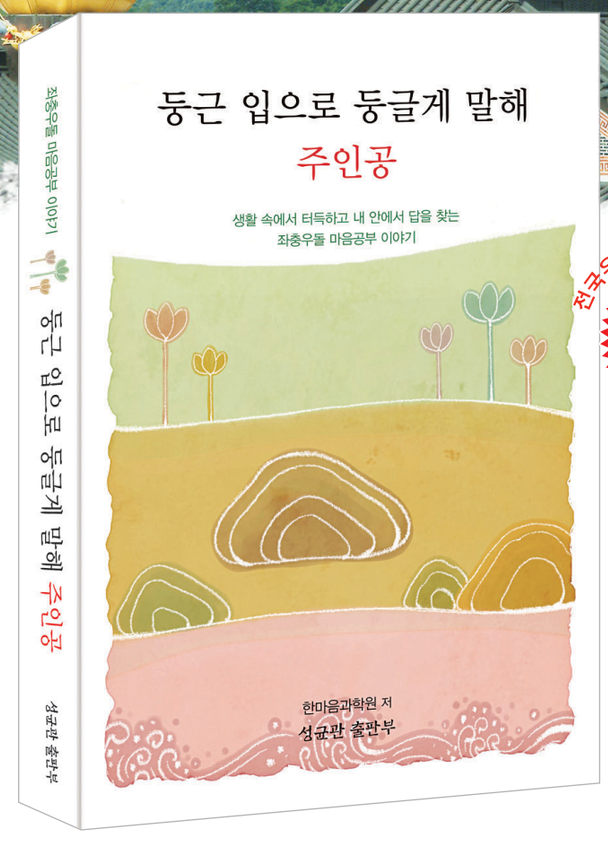
NAVER 함께하는 진화 검색

나로부터 시작하는 마음공부

• 한마음과학원에서 10년간 실시한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들이 마음으로 써낸 수행일지의 정수
• 마음보기, 가족, 직장, 사찰에서 실제로 부딪히고 겪으며 주인공 관법으로 정진해 나가는 명쾌한 해결책
• 마음공부의 지혜, 사랑, 웃음과 눈물, 감동이 가득, 수행 재발심의 도우미

목 차

1장 _ 내가 알지 못했던 나에 대하여
2장 _ 내 인생의 마음공부
3장 _ 내가 바뀌어야 남도 바뀐다고
4장 _ 나로부터 나를 깨치는 가르침
5장 _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



전국유명서점에서 절찬 판매중

값 13,000원

한마음과학원 펴냄 | 성균관출판부 | 315쪽 | 값 13,000원 문의 031)470-3200 * 판매처 : 전국유명서점, 인터넷서점